

在銘銀入絲香垸の新例

文 明 大

銀入絲香垸은 우리나라 金屬美術史에서 가장 유익하게 취급되고 있는 작품이다. 향내음의 은은한 三昧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香垸美 가운데서는 특별한 정성과 섬세한 기교를 다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宗教的인 法悅이 審美的인 유연함이 깃들여 있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에 새겨 넣어진 銘文은 美術史研究에 없어서는 안 될 珍寶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 × × ×
오랫만에 在銘銀入絲香垸이 새로 발견되었다. 그것도 典型樣式의 形態이면서 색다른 수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는 作品이다.

臺底面이 몇단의 물딩을 이루지 않고 그냥 곡선을 그리면서 꼭 내려 뻗었다든가 入絲紋樣이 진연 색다른가 銘文이 入絲도 아니고 通式으로 새겨넣던 口緣部裏面이나 臺가 아니라 口緣部表面이라는 것들이 이 香垸을 특징짓고 있다. 이것은 略화된 수법인 것 같지만 그런대로 의 뜻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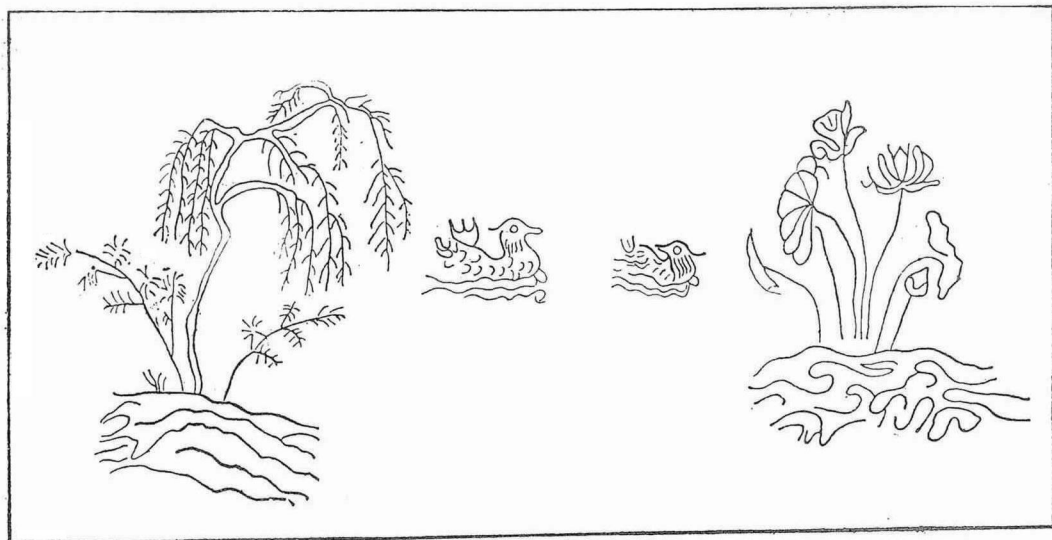
깨어진 솜씨는 의젓하면서도 늘씬하다. 미끈하게 뻗은 다리나 아래위의 조화, 그리고 곳곳의 물딩적인 처리 때문이라 하겠다. 청아하고 정갈한 푸른 녹의 고운 바탕색갈에 섬세한 꽃과 나무, 동적인 오리를 그린 銀入絲色갈의 조화는 한결 고상한 風格을 보여준다. 청녹의 바탕색은 보통 銀入絲香垸이 취하고 있는 烏銅의 검은 색과는 달라진다.

넓고 완만한 口部에는 물딩의 口緣部가 있으며 바깥 님아서 「道人戒雄造納」이란 銘文이 陰刻되었다. 施納한 사람밖에 쓰지 않아서 製作年代나 寺院名 등을 알 수 없는 것이 애석한 일이다.

胴體는 가운데가 완만히 배부르고 바깥은 다시 一段의 물딩을 이루고 있다. 銀入絲는 바로 表面에 오리, 버드나무, 갈대, 대나무, 蓮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臺는 윗부분이 一段의 물딩을 이루면서 身部를 받치고 있으며 그 아래는 활같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미끈하게 내려가다가 끝을 쓸올리면서 끝맺음을 한다. 모양이라던가 크기나 비율은 表忠寺香垸(一一七七年) 또는 乾鳳寺香垸(一一一六) 등 初期銀入絲香垸과 거의 비슷하다.

○ × × × ×
이 香垸의 특징은 무어니 해도 銀入絲라 하겠다. 알개 入絲했기 때문에 조금



은 멀어져 버리긴 하였겠지만 섬세한 線의 리듬은 逸品이다. 정적인 나무와 꽃들의 배경 속에 동적인 오리가 물결을 타고 흐르게 한 入絲수법은 可히 獨步라 할 만하다. 香奩가운데 이같이 운치있는 묘사를 한 것도 없었지만 象嵌靑磁에서나 나타나지는 좀체다. 비슷한 풍경이 묘사된 것은 全鑿彌氏藏 靑磁象嵌柳竹蓮蘆鴛鴦文淨瓶^②이 있고 좀 다른 國博藏 素燒陰刻柳蓮文瓶 등이 있다.

가령 오리를 보자. 曲線의 동적 묘사를 최대한으로 살려낸 표현력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두마리가 다 잔잔한 물결을 헤치고 가는데 문득 앞서가던 오리는 머리를 돌려 뒤 따르는 오리와 마주보게 하는 수법, 크고 적게 그려 遠近法을 살린 점 등은 非凡한 솜씨라 할 만하다.

오리의 좌우 양쪽에는 蓮과 버들의 두 무더기가 그려있다. 오른쪽 蓮은 극히 섬세하게 묘사한 물결 위에 滿開한 蓮꽃 갖핀 것 그리고 봉오리들을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왼쪽 무더기는 물가의 완만한 둔덕에 버드나무를 중심하여 두 그루의 대나무와 풀을 그린 것이다. 휘영청 굽은 나무에 죽죽 내려뜨린 가지들은 걸작 東洋畫의 그것이며 양쪽 대나무의 측삭 그은 線은 이 그림을 한결 더 조화롭게 한다.

蓮잎에는 다시 버드나무와 대나무 풀의 一群이 같은 수법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옆도 역시 蓮을 중심으로 갈대와 풀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오리를 중심해서 蓮群, 柳群이 엮갈려 배치된 셈이다.

이 외에 거의 例外없이 表現된 梵字나 細, 太線 등의 文樣이 없는 것은 이것만의 특징인데 역시 銀入絲香奩樣式에서 벗어난 표현이다.

X X X

銘文에 年代가 없는 이상 이 香奩의 제작년대를 확실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몇가지 이유로 해서 十三세기 즈음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모양과 비올때문이다. 胴體와 臺가 잘 균형을 이루어 초기 銀入絲香奩 특히 表忠寺香奩와 거의 유사하며 비올도 全高와 上徑이 거의 一대이며, 上徑과 下徑이 三대二인 十二, 三세기 香奩비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다만 略化수법이 곳곳에 보이고 있어 그렇게 올라가는 作

品은 아닐 것 같다.

두째로 入絲手法이 그 당시의 것과 같다.

세째로 文樣이 十二, 三세기 高麗靑磁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그때문이다. 특히 十二세기 作으로 보고 있는 全鑿彌氏藏 象嵌淨瓶과는 그 配置法이 거의 같은데 이와같은 初期象嵌文樣을 範本하여 銀入絲하였으리라 생각된다.

麗末鮮初에 나타나던 같은 표현의 투박한 文樣에 비하면 훨씬 세련되었고 略化될 수법이긴 하지만 모양, 비올 등으로 보아 十三세기 경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된다.

註

① 黃壽永: 高麗靑銅銀入絲香奩의 研究

② Kim and Kim, Treasure of Korean Art p. 49.

資料

統和와 正德銘의 塔誌石

黃 壽 永

이 곳에 소개하려는 塔誌二枚는 今年 六月十五日 서울 李秉珪氏가 東國大博物館에 寄贈한 것이다. 發見經緯에 대하여서는 아직껏 알 수 없으나 아마도 古代石塔內에서 舍利具와 함께 安置되어 오던 것이 近年에 遊離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同一塔의 舍利方孔에서 동시에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李氏가 一九六七年 九月頃 入手한 即後에 필자에게 그 銘記만을 알려준 바 있어서 필자는 이것을 考古美術資料 第十五輯「續金石遺文」(一九六七年 四月刊)에 收錄한 바 있었다. (同書